

# 귀농·귀촌, 자연특별시 무주로!

### 무주군, 귀농·귀촌인 유입·정착 도모 위해 임시거주시설 확충 총력

무주군이 귀농·귀촌인 유입·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거주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사업(전북형 보급자리 조성 사업 공모 선정)'을 추진 중으로 실시설계(설계안 공모를 통해 선정)를 앞두고 있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사업'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준비 단계부터 정착까지 무주에 머물면서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군은 2025년까지 안성면 일원(대지면적 8,866㎡, 연면적 1,168㎡)에 다세대 주택(지상 2층, 16호)과 텃밭, 공동 나뭇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까지 마련하면 무주군은 단·중·장기 목적의 임시거주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이라며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귀농·귀촌자로서 무주가 최상의 선택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국 안정적인 무주 정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되

는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와 맞물려 일자리 등 귀농·귀촌인 유입·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무주군 귀농·귀촌 관련 임시거주시설은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안성면)과 '무주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안성면)를 비롯해 '귀농인의 집' 2곳(안성면, 무풍면)으로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은 귀농·귀촌 준비를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무주에 거주하면서 약 9개월간 귀농·귀촌을 위한 소양 교육 및 영농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설이다.

올해는 8세대 12명이 오는 14일 입교 예정으로 실습농장 내 주택에서 거주,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으면서 정착 후 농사지를 땅과 빈집 정보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무주군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귀농·귀촌 관련 교육 2시간 이상 이수)이 이용할 수 있는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는 최대 3일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귀농·귀촌인들로 구성된 멘토 9명과 매칭 상담)에 참여해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자를 무주군으로 정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동안(최대 12개월) 머물 수 있는 단기 이용 시설로 안성면과 무풍면 2곳에 70㎡ 정도의 규모로 마련돼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광영 과장은 "2022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귀농에 필요한 준비 기간은 평균 24.5개월, 귀촌은 15.7개월"이라며 "이러한 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청년 및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년 간 임대 예정인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이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도움을 주는 수요자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존 시설들과의 연계·활용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성료

### 고로쇠 수액 맛보며 각종 프로그램·다양한 체험 등 즐겨

지난 9일~10일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삼거리에서 열린 제20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가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고로쇠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고로쇠 수액을 맛보며 각종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에 참여하며 흥겨운 축제를 즐겼다.

국가지질공원인 운일암반일암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구름다리까지 다녀오는 진안고원길 걷기, 고로쇠 수액과 진안농산물로 지은 고로쇠비빔밥 나눔행사, 고로쇠 수액과 병을 본떠진 행진 고로쇠 불꽃대회 등에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대표 프로그램인 '출발! 숲탐합대'는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과정과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숲속, 계곡을 체험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어 어린이 동반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체험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체회원 중고생 20여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시도함으로써 모두가 즐기는 진안고원운장산고로쇠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위한 '2024년 취약계층 이송비 지원'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도내 및 응급 의료권역에 응급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에 구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금액은 거리별 이송지원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최대 1건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지원대상자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서류 접수 후 익월 15일까지 이송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타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약의팀(350-2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자연특별시 무주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

### 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사용 촉진·재활용 활성화 책무

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무주에서민들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고 하며 공공목적으로 제작되는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의 적극 시행을 당부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이하 친환경 현수막 조례)'를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북 지자체에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은 무주군이 최초이다.

지난 2022년부터 수 차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독려해온 최윤선 위원장은 "행정부처 친환경 현수막을 의무사

용하며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관내에서 제작·사용되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계기로 무주에서 제작·사용되는 일회성 물품들은 자연분해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자연환경을 앞세워 마케팅을 하는 자연특별시 무주는 당연히 환경친화적 정책에 큰 비중을 뒀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 현수막 조례는 환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중 시행되는 총선을 앞두고 무주군 곳곳에 현수막이 무척 많이 걸릴 거라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원 후보들도 친환경 현수막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11월까지 '영농현장 중점지도의 날' 운영

장수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1월 수확기까지 매월 2회 '영농현장 중점지도의 날'을 운영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영농상담을 추진한다.

영농현장 중점지도의 날은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에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7개 읍·면을 방문해 영농 지도 및 시기별 농작업 지도가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작물의 재배 관리 요령 등을 상담한다.

군은 농작물 재배지의 지수적 예측과 지도를 통한 병해충 예방을 추진하고 병징 발생 시 빠른 진단을 통한 적기 방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추진하는 찾아가는 영농상담은 이상기상과 태풍, 폭염, 건조 등 연중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재배에 사전 대응하도록 시기별 기상재해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질공원 브랜드 활용 관광 활성화 주력

###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재인증을 받은 가운데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연특별시 무주군은 '방문의 해'를 맞아 생태·지질 자원이 우수한 지역 홍보에 집중할 방침으로 무주지역 국가지질명소는 '외구천동지구(수심대, 파회, 라재동문)과 '적상산 천일폭포', '오산리 구상화강편암암', '금강버섯길', '용추폭포' 등 5곳이다.

무주군은 국가지질공원 관련 지질 학습 및 체험, 해설사 지질명소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지질공원 설명이 담긴 컬러링 북과 명소를 형상화한 기념품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가지질공원의 명성이 생태 자연환경이 우수한 자연 특별시 무주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무주 방문의 해를 맞아 찾아오신 분들이 무주군 지질명소, 더 나아가 진안·무



용추폭포



라재동문

주 국가지질공원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곳을 보전하고 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곳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16곳 있다.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진안·무주지역 지질명소 총 10곳)은 2019년 7월에 첫 인증됐으며 올해 3월 재인증을 받아 연간 1억 원(국비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 진안지역 지질명소 마이산, 구봉산, 천반산, 운일암반일암, 운교리 삼각주 퇴적층 진

안·무주 국가지질공원에는 그간 5백만 명의 탐방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으며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두 지역(진안·무주)은 추가 국비 확보 등을 통해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과 지질공원 홍보, 주변 마을과의 협력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 지질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예교 캠핑 삼천리길' 등 생태관광지와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계획이어서 체류형 생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